

일제 강점기의 수탈·아픔 역사를 통해 교훈을 배우다



춘포역 - 역사 내 과거 사진·기록 등 전시·7080 추억여행 등 문화 행사 추진 호소카와 가옥 - 전체적 원형 간직 지역사적·건축적 중요한 가치 있는 유적

지난 2015년 7월 익산은 한차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다. 부여, 공주, 익산으로 이어지는 백제역사유적지구가 2015년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며 역사유적로서의 특별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12번째 세계문화유산이 되었으며 등재 후 1년여 시간이 지나면서 익산은 고도(古都)로서의 명성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지역에는 고도 백제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수탈과 아픔의 역사 또한 간직하고 있다. 넓고 풍요로운 곡창지와 교통의 요지라는 이점을 이용하여 일본은 우리지역을 수탈의 최전선으로 삼았으며 당시의 참고건물 및 일본의 가옥 등의 아픈 역사의 현장은 아직까지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다. 그 역사를 되새겨 교훈으로 삼고자 일제 강점기 시대의 문화유산들을 따라가 보았다.

▲ 근대 농업 수탈의 전초기지로서 문화의 담금질을 시작하다 구 익속수리조합 사무실 및 창고

익산역 앞 문화예술의 거리 안쪽으로 도보로 10분 남짓 걸어가다 보면 익산 문화재단이라는 방향 안내판이 나타난다. 코너를 돌면 정면에 빨간 벽돌에 범상치 않은 아우라를 내뿜고 있는 건물을 만날 수 있다.

이 건물은 일본인 농장 지주들이 쌀 생산량을 늘리고자 창설한 익속수리조합의 사무실 및 창고로 사용된 건물로서 서양식(트네상스의 팔라조 양식)으로 1930년에 지상 2층의 붉은 벽돌로 지어진 건물이다. 정면 중앙의 출입구와 위쪽 창호 부분은 테두리에 꽃잎무늬 형상의 인조석으로 치장하여 붉은 벽돌과 대비를 이루고 있고 맨사드 지붕 등 독특한 당시의 건축기법들을 보여주고 있다. 토지 개량과 수리 사업을 명분으로 설립되어 과다한 공사비와 수세를 부담시켜 지역 농민을 몰락시키는 등 일제에 의한 우리나라 근대 농업 수탈의 역사를 증언하고 있는 건물이지만 애석하게도 건축 및 기술사적으로 매우 가치가 높아 건축공학도들도 즐겨 찾는 곳이며, 지어진지 8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견

고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해방이후 전복농지개발조합의 청사로 사용되다가 이전하면서 빈 건물이 되었고 십 수 년 간 폐허로 방치되던 건물은 2005년 등록문화재로 지정이 되며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후 2009년 '익산시 문화재단'이 입주하고 새 단장을 통하여 지금은 익산시의 문화 예술의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지난 10월 21일에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한 작은 미술관 사업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고, 부속으로 있던 낡은 창고건물이 솥리골 작은 미술관으로 새롭게 재탄생하여 현재는 시민들의 문화 예술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위치 : 익산시 평동로 1길 28-4
대표전화 : ☎ 063-843-8811

▲ 우리나라 최고(最古)역사, 춘포역

익산시 춘포면에는 지어진지 100년이 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가 있다. 2011년 폐역되기 전까지 전주와 익산을 이어주는 이곳 춘포역은 과거 이용객들로 상당히 꽤 분주한 장소였다고 한다. 하지만 교통의 발달로 인한 이용객 감소로 2007년부터는 열차가 다니지 않았고 결국 전라선 복선전철화 사업으로 2011년 폐역이 되면서 현재는 역사만 덩그러니 남아 있다.

2005년 춘포역사가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었고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지정 사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914년에 건립되어 대장역이라 망명된 역사 건물로, 1996년 춘포역으로 개칭되었다. 슬레이트를 얹은 박공지붕의 목조 구조는 소규모 철도역사의 전형성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로 역사적, 건축적, 철도사적 가치가 있다."

원래 선로가 깔려 있던 역사 안쪽으로 가면 옛 철로는 철거가 되고 새로 건설된 전라선 철로가 보이는데 불과 십여 미터를 두고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역사에 철로가 없다면 두언가 쓸쓸한 느낌을

지을 수는 없다. 춘포역사와 함께 철로를 그대로 두어 옛 모습을 간직했다면 관광지로써 더 많은 방문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든다. 그래도 옛 추억을 간직하고자 역사 내에 과거의 사진과 기록 등을 전시해 두었으며 7080 추억여행 등 문화 행사들을 추진하여 춘포역을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방문 전 전화예약을 하면 실내구경과 함께 명예역장님의 해설 및 관람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위치 : 익산시 춘포면 춘포1길 17-1
해설 및 관람안내 : 최중호 명예역장 ☎ 010-3673-0797

▲ 호소카와 농장과 수탈의 시대의 산증인, 호소카와 가옥

춘포역에서 춘포면사무소를 지나 가다보면 굉장히 이국적인 느낌의 한 가옥을 만날 수 있는데 이 가옥은 과거 일제 강점기 호소카와 농장의 관리인이었던 일본인 에토가 1940년경 농장안에 지은 2층건물의 나무판자를 잇대어 지은 일본식 가옥이다.

당시 이 가옥을 포함한 춘포지역의 엄청난 규모의 농지는 일본에서 건너온 호소카와가의 농지였으며 그 규모는 당시 호남지역에서 세 번째였다고 한다. 춘포지역 3분의 2 이상인 전면 이상이 호소카와 농장에서 소작을 했고, 지명 또한 원래 지명인 춘포에서 넓은 뜰이라는 뜻의 '대장촌'으로 바뀌게 되며 아직까지 주변지역에 '대장'이라는 지명들이 간혹 사용되고 있다. 호소카와 가옥은 대표적인 호남지역 농업 수탈 지역이었던 춘포의 당시 상황을 잘 보여주는 건물이다.

팔작지붕에 일식 기와를 사용한 이 건물은 편의성 때문에 내부는 일부 수리 및 개조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원형을 간직하고 있어 지역사적, 건축적 중요한 가치가 있는 유적이며 현재는 등록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다. 지금은 이 건물에 일반인이 거주하고 있어 평상시에는 공개가 되지 않지만 지역행사가 있을 때 한 번 씩 공개하여 그 모습을 드러내준다.

**위치 : 익산시 춘포면 춘포4길 48

▲ 시간의 흐름 속에 만경교를 기억하다, 구 만경교

차를 타고 익산 목천동에서 김제 백구면 쪽으로 넘어가다

보면 현 만경교와 대비되는 구 만경교가 있었다. 일제강점기 일제가 우리지역의 곡물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928년 2월에 준공하였으며 일명 '목천포 다리'로 불리며 1990년까지 무려 62년간 익산과 김제를 잇는 중요한 길목으로서 사람과 물자의 이동이 끊임이 없었던 곳이다.

익산과 김제를 넘어서 전주와 군산까지도 접근성을 높여준 이 다리가 전국 최초의 포장도로였다니 어쩌면 큰 명예를 지닌 것 같기도 하지만 이는 1920년부터 일제에 의해 실시된 산미증식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지역에 나는 수많은 쌀과 농산물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 군산항까지 실어 나르던 비운의 다리이기도 하다. 만경교는 이러한 수탈의 아픔도 가지고 있지만 지나간 시간 동안 우리지역 주민들의 교류통로가 되었던 지역의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다. 이 지역 출신인 윤홍길 작가의 소설 『기억 속의 들꽃』의 배경이 되었고, 마을 축제의 장이었으며, 물장구치며 물고기를 잡던 어릴 적 추억을 간직한 곳이기도 하다.

1990년 구만경교 옆 새로운 만경교가 놓이면서 그 쓰임은 동네 주민들에게만 간간히 이용되어 왔었는데 2015년 6월 세월의 흔적을 속이지 못하고, 노후와 안전사고의 위협으로 인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전면 철거를 하지는 않고 다리 양쪽 끝부분을 만경교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추억을 남겨주고자 깔끔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여 방문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들의 근대사는 일제 강점기 시대의 아픔이 명백히 존재하고 있지만, 단순히 아픔의 역사만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를 잇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근대 문화가 도입되며 개화가 시작된 중요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형성된 다양한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 노력이 없이 급격한 산업화 속에 많이 소실되고 훼손되어 왔다. 아니 먹고 살기 바빴던 전후세대에 그럴 겨를이 없었던 것일 수도 있었다.

익산 일제 강점기 때의 건물과 장소들이 곳곳에 남아있다. 아픈 역사의 현장이라고 생각한다면 한없이 마음이 아프지만 이를 잘 보존하고 되새김으로서 우리 후손들에게 다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줄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익산=장양원 기자

전주매일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우리동네 무인주차장 어디에 있을까?

주차하고 구경하고
무인주차장에 주차하면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합니다.



[전주시 무인주차장 안내]

- 서부신시가지 도청영**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75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노송천 주차장**
 전주시 노송여울2길 108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농협중앙회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북로 5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다은병원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2길 5-12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서부신시가지 KB은행 부근**
 전주시 완산구 흥산1길 4-13
 (239-2767~69)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덕진광장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덕진광장로 3
 (239-2562)
 (연중무휴) 6,000원 기본(30분):600원, 추가(15분):300원
- 실내체육관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권삼덕로 308
 (251-1264)
 (연중무휴) 4,000원 기본(30분):500원, 추가(15분):250원